

교섭속보

- 주 1. 정년연장, 신규채용
요 2. 고정OT 월 20시간
요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구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8월 25일(화) / 제 06호

6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4일(월) 10:00 ~ 10:3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4일(월) 12:00 ~ 12:0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노 : 6차 교섭이다. 회사안 제시 바란다.

☐ 사 : 별도 준비된 안 없다. 금년도 회사의 지불능력 고려 바란다. 회사안 마련에 곤욕스럽다. 조합 측의 합리적인 논의 바란다.

☐ 노 : 또다시 얘기하지만, 금년도에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 안에는 조합원들의 노고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에 걸맞는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회사는 비용이 450억 이상 발생한다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바란다.

☐ 사 : 실무를 통해 전달하겠다.

☐ 노 : 완성차 1차 밴더 중 만도의 평균 연봉이 상위급에 존재하는데, 이는 평균 근속년수가 29.4세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매년 기본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고 있다. 동종업계 수준은 따라가야 하지 않나.

☐ 사 :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논하자는 것 아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가 무한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 노 : 월급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고, 일거리가 줄어들어 2조 근무에서 상시 1조로 전환되며 급여가 줄었다. 결국 영업의 문제 아닌가. 해외사업 발전 좋지만 국내 공장도 함께 발전해야 할 것 아닌가.

- 사 : 월급제는 임금 변동성을 줄이고자 도입했다. 일이 줄어서 급여가 줄었다는 논리는 맞지않다.
- 노 : 매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갱신하며 성장하는 회사에 비해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안 없다면 이만 마치자.

- 단체협약 교섭 주요 내용 -

- 노 : 요구안 발송한지 50여일이 지나고 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 요구안 제시바란다.
- 사 : 별도 준비된 안 없다.
- 노 : 조합 요구안 위주로 빠른 교섭 원한다. 주 2회 본교섭 외에 실무교섭 진행하자.
- 사 : 단협 교섭에 한해 주1회는 본교섭으로 진행하고, 1회는 실무교섭으로 별도 진행하자.
- 노 : 검토하여 실무를 통해 전달하겠다.

오늘도 또한 어렵다

6차 임금 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되었다. 6차까지 오는 동안 회사가 보여준 것은 무성의의 반복이었다. 회사는 임금교섭에서 회사안이 없다며 지불능력과 곤욕스럽다는 표현으로 이번에도 답을 미뤘다. 그러나 올 상반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사실 앞에서, 아무런 안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좋은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

금일 교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월급제 도입 이후의 실질임금 문제였다. 월급제 시행 이후 생산성은 매우 향상이 되었는데, 정작 일거리가 줄어 2조 근무가 상시 1조로 전환되고 특근까지 줄면서 조합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급여는 감소했다. 이것이 임금체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회사 측 영업의 문제라는 것이 조합의 지적이었다.

회사는 월급제는 임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박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생산성은 올랐는데 근무형태와 특근이 줄어 실수령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조합의 주장이 아니라 현장의 사실이다. 사실을 두고 ‘맞지 않다’ 고 말하는 것으로는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단체협약 교섭, 주1회 본교섭과 나머지 실무교섭 진행키로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이번에도 회사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임금 교섭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단협승계 문제가 걸려있어 협약 전문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노사 모두가 인지했다. 이에 회사측은 주 1회는 본교섭으로 큰 틀의 쟁점을 다루고 나머지 1회는 실무교섭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고, 노동조합은 실무를 통해 본교섭 1회와 나머지 실무교섭을 통해 조문을 촘촘히 짚어나가기로 했다.